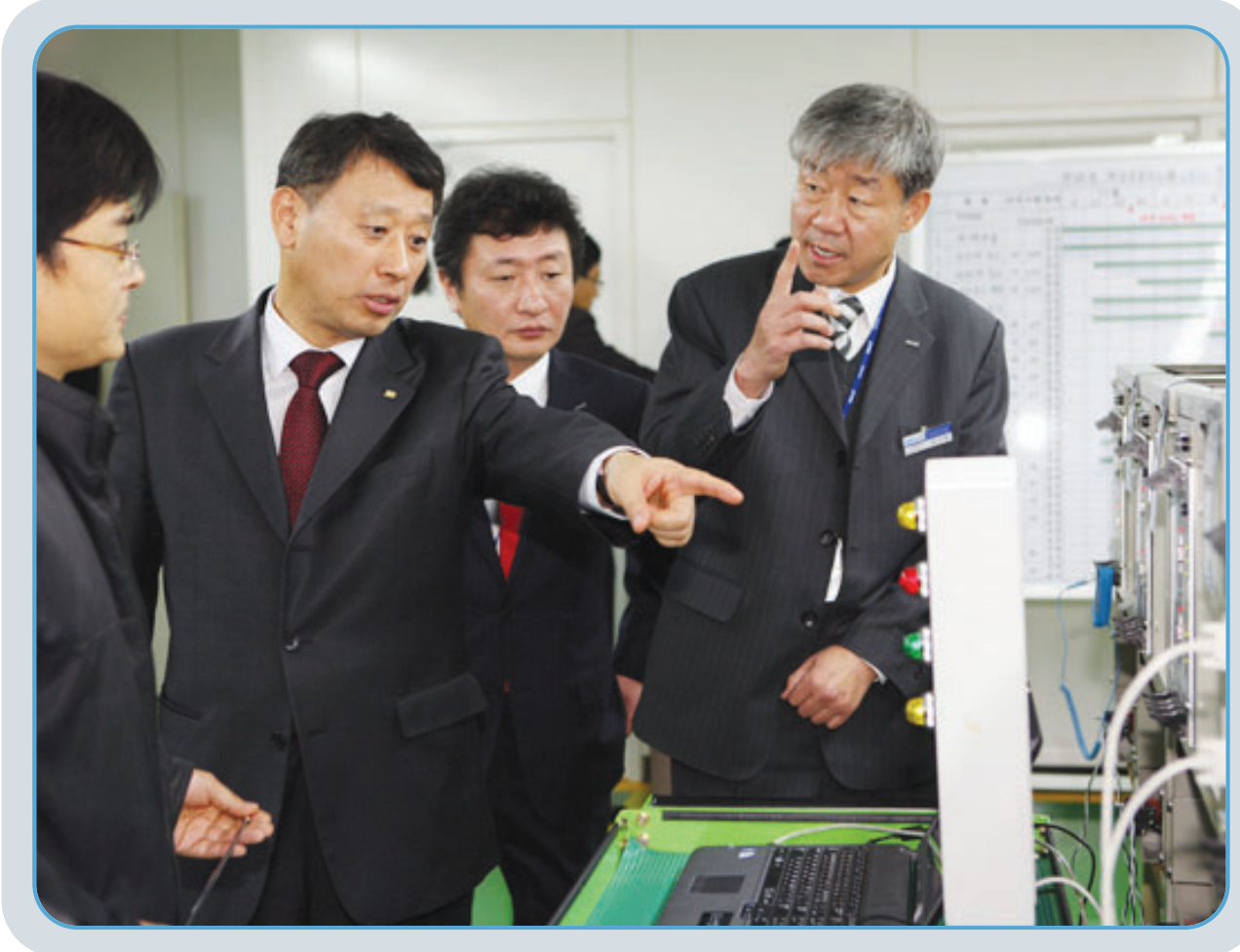


CEO 동향

신호시스템 제작공장 및 철도교통관제센터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6일 부천에 위치한 ATP 신호시스템 제작공장 및 구로에 위치한 철도교통관제 센터를 방문, 각종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광재 이사장, 국토부 공무원 대상 특강

- “철도건설현장 관행 더 많이 고쳐 스마트한 철도건설” 역설 -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경험으로 얻은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김 이사장은 이날 특강에서 취임 후 철도건설 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우리 철도산업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예로 들면서 “앞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역무시설, 정거장시설 등 과다설계를 대폭 개선하여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더 많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혈세가 경직성 경비로 둔갑하여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 중이거나 협상중인 BTL 민자사업의 과잉 설계를 개선하여 SMART 한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김 이사장은 또 “과잉설계 등을 바로잡아 절감한 예산은 정부와 협의해 더 많은 철도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재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시판

금주의 주요뉴스 (12. 5 ~ 12. 10)

- 철도시설공단 노조 ‘사실 왜곡 멈춰라’ (한국일보, 중도일보 12. 5)
- 시속 180km 정준열차 올리는 못 본다(중앙일보 12. 5)
- “경춘고속도·전철에 ‘빨대 효과’ 없었다” (조선일보 12. 5)
- 주민들 반대... 설명회도 못 열어(금강일보 12. 5)
- 경춘선 좌석형 급행열차 ‘고통철’ (강원일보 12. 5)
- 경주시 ‘허기-단속’ 이원화로 행정공백(경북도민 12. 5)
-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로 개발(국민일보, 울산매일 12. 6)
- 동탄중심축 통과 요구에 국토부 ‘본타당성서 주민의사 반영 노력’(중부일보 12. 6)
- 철도시설공단 개혁작업 ‘햇바퀴’ (금강일보 12. 6)
- 수도권전철 철원 연장 청원(강원일보 12. 6)
- 경춘선 급행 ‘고통 전철’ 오명 감수하려는개(강원일보 12. 6)
- 또 해남가는 전남도 현안사업(광주일보 12. 6)
- 호남고속철 차량 선정 또 유찰(서울신문 12. 7)
-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본격화(조선일보 12. 7)
- 최저가 낙찰제 ‘300억 이상’ 유지(서울신문 12. 7)
- “철원 경원선 복선화로 복원하라” (신아일보 12. 7)
-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찬성” (경북도민 12. 7)
- 호남고속철 차량입찰 또 유찰(광주일보, 전남일보, 대전일보 12. 7)
- “철원 신탄~대마리 복선화” (강원도민 12. 7)
- 코레일, 경쟁을 받아들이어야(매일경제 12. 8)
- 경부고속철 울산역 승객 급증(한겨레신문 12. 8)
- “철도를 저탄소 녹색성장 선두주자로” (서울경제 12. 8)
- 철도경쟁체제, 국민불편 부메랑된다(서울경제 12. 8)
- 원주~강릉 복선전철 최종안 언제 나오나(강원일보 12. 8)
- 경춘선 흥선까지 운행해야(강원일보 12. 8)
- 달리진 상륙수역 시민 쉼터 재탄생(중부일보 12. 8)
- 철도시범선로 반대대책위 결성(금강일보 12. 8)
- 보성~임성 철도건설 또 연기(광주일보 12. 8)
- 철도건설 과다설계 줄여 예산절감(파이낸셜 12. 9)
- 노사갈등 철도공단 노는 ‘흙내내기’(서울신문 12. 9)
- 수원시 철도망 중심도시 ‘급부상’(경기일보 12. 9)
- 철도공단 노조, 임금협약 체결 촉구(경기신문 12. 9)
- 대통령 내년도 업무보고 14일부터 부처별로 실시(강원일보 12. 9)
- ‘10% 부가세 별도’ 없어지나(국민일보 12. 10)

불필요한 시설 축소 - 철도건설 사업비 절감

- 이용자 중심의 설계 및 시공방법 개선 -

공단은 현재 계획 중이거나 시공단계에 있는 철도건설 사업을 재검토해 사업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50% 재원을 부담하여 건설하는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공주, 익산, 정읍 등 3개의 중간역에 부분선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으나 고속열차 전용선으로서 속도가 동일한 고속열차까지 대피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간역의 부분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협의 요청했으며, 이 경우 59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경부고속철도 부분선의 경우 사용실적 분석결과 ‘11.10월 이후 김천구미역에서 1회 사용된 외에 광명역, 천안아산역, 오송역, 신경주역, 울산역에서는 이용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과 원주~제천 복선전철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원주역(중앙선)을 폐지하고 서원주역, 만종역, 남원주역 등 3개 역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시설이 중복되고 열차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도시 외곽에 위치해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원주~강릉 복선전철 실시계획 시 신원주역(가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 중으로 이 경우 13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중앙선 서원주역과 구덕역의 경우 여객취급역에서 여객을 취급하지 않는 역으로 역무운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홍지분, 승강설비, 신호·통신설 등의 시설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8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수인선은 당초 급행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피선을 설치하기로 계획했으나 최근 열차성능 및 신호시스템 등의 기술이 발전

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아목역, 사리역(상부본선), 연수역의 대피선을 폐지하고 송도역의 화물취급 전망을 검토해 유치선 1선을 폐지할 경우 4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산2단계 - 광주 차량기지는 검수주기, 인력운영 계획, 차량 유지능력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차량유치선을 없애고 종합관리동, 운전보소, 편익시설 축소 및 경비실을 폐지할 경우 210억 여원 이상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철도가 이용자 및 운영자 중심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과잉시설이 없도록 설계해 사업비 낭비를 줄이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절감된 사업비는 정부와 협의해 더 많은 철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예산절감 노력에 전 직원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낸 직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품질안전 실패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재해 예방과 품질안전관리 제고 기대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김영우)은 지난 8일 3층 대회의실에서 ‘품질안전 실패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철도건설 품질안전 실패사례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발표대회는 인적·물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했던 3개의 사고사례와 지역본부별 심사 및 본사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5개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최종 심사결과에 따른 포상으로 진행되었다. 실패사례는 경원선 월계-북천 철도이설공사 초안산 사면유실 사고사례, 호남고속철도 달성터널 붕괴 사고사례, 경부고속철도 식장터널 철근 붕괴 사고사례 등 3건을 발표하였고, 우수사례는 경의선 2공구, 경부고속철도 10-1공구, 동해남부선 1공구, 진주-광양 5공구, 호남고속철도 1-3공구 등 5개 현장의 품질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개 현장, 정력상 2개 현장에 대해 시상하였다. 금상은 이사장 표창과 상금 1백만원 등 총 상금 280만원이 수여되었다. 이번에 이사장 표창을 수상한 5개 현장은 2012년도 자율관리현장 지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3개 실패사례와 20개 우수사례 내용을 정리한 책자가 제공되어 품질안전 정보공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표대회 후에는 참석자 140여명 전원이 공단 5층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였다. 김광재 이사장은 발표대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앞으로는 실패사례 발굴을 확대하고, 또한 실패를 극복하여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사고 및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한 현장에 대해 포상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경영지원안전실은 지속적으로 철도건설현장의 품질안전관리 실패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현장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영지원안전실 신승섭 기자>



공단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10억원 예산절감’ 기대

- ‘1捨 1획 1得’, ‘여럿이 함께 Pay’ 등 실천지침 마련 -

공단은 지난 1일부터 외부에서 열리는 회의 등에 꼭 필요한 직원들만 참석토록 하고, 보안에 지장이 없는 문서는 전자메일, 이메일 등 전자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사무용지, 프린터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점심시간 소등, 부재 시 컴퓨터 모니터 끄기, 겨울철 내복입기 등을 전가해 정부의 전력절약과 녹색성장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할 계획이다. 공단은 출장 시 출장차별도 역할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동반출장이나 중복출장을 지양하며, 계획서 및 복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예산담당자의 출장비지급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등 출장업무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인력과 경비를 절약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공단은 물자 아껴 쓰기로 4억 원, 출장합리화로 5억 4천만 원 등 연간 10억 원 정도의 관리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정정당당 업무수행’, ‘먼저 제안하고 실천하기’, ‘건강한 삶 누리기’, ‘1捨(사) 1획(습) 1得(득)’, ‘여럿이 함께 Pay’ 등 5대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공단 내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근무태도를 정착시키고 동시에, 조직과 개인생활을 함께 영위해 나가는 건강한 직장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1사 1획 1득’은 관행을 버리고(捨), 역량을 강화해(획), 목표를 달성(得)하겠다는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 개선활동을 의미한다. 공단 관계자는 “일하는 방식 혁신운동은 불필요한 작은 관행과 습관부터 바로잡아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예산 절감을 도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이 절대 필요하므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고, 모범직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등의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